

장흥군, 버섯류 활용 특화산업 추진 탄력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3년간 총 사업비 200억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 소재 실증 생산시설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3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규모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에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 소재 실증 생산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지역 성장 정책으로,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도전하여 선정된 2022년 신규 과제는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이다.

진균류는 포자나 영양 생식으로 번식하는 미생물로 버섯, 곰팡이, 효모 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항암제 등 헬스케어 원료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버섯은 장흥군이 전국에

서 으뜸가는 생산단지인 장점을 살려, 본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하게 됐다.

진균류 관련 사업은 농가가 단순히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버섯균사체를 배양하여 기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제공하게 되는 신산업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이로써 농가 수익으로는 버섯 원물 대비 4배 정도의 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본 사업은 장흥군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해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GMP(우수 식·의약품 제조 기준) 생산 지원 등을 총괄하여 추진한다.

참여기관인 천연자원연구센터에

서는 소재 비임상 효력 시험 등을, 한국한약진흥원에서는 소재 안전성 인증 등을,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유용균주 배양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8,250㎡ 부지에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지원센터시설 구축과 연구 장비 85종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사업종료 이후에는 장비 임대, 기술이전 산업화를 통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자립 기반 확충과 함께 바이오산업 연계 기업 유치와 지역 버섯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R&D 기반 구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청년 '창업' 도와드릴게요" 초보 창업 길잡이...청년 창업 스쿨 교육생 92% 수료

진도군이 초보 창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 스쿨'의 수료식을 청년센터에서 최근 개최했다.

49세이하 청년 25명이 참여한 '청년 창업 스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까지 총 10회로 진행됐다.

교육은 초기 창업자들의 실패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아이템 선정·개발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체 교육생 25명 중 23명이 수료해 92%의 수료율을 달성하는 등 성공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도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열린 '청년 창업스쿨'에 63명이 참여해 5월 현재 5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군은 청년 창업 스쿨 수료생에게 창업에 위한 컨설팅, 맞춤형 솔루션 제공, 창업지원대상자 선발시 자격 우대, 창업시 현판 제작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예비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사업 준비와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 스쿨을 개최했다"며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창작 등에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생생문화재 사업 통해 역사와 전통 배운다

학생 대상 '가리포 500주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 진행

완도군과 문화재청이 후원한 2021 생생문화재 사업이 지난 3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09호인 완도 객사에서 '가리포 500주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지역민들이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 공모사업에 '가리포 500주년 조선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이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 다례 체험 진행
가리포진은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일컬으며 1521년(중종 16)에 설립되고, 1895년(고종 32)에 폐진 된 서남해안의 중요한 수군 진성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알기 강연, 전통 다례 체험, 액자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했다.

군 관계자는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도서 수군객사인 완도객사에서 가리포진 설립 500주년을 맞아 가리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강연이 진행돼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한 2021년도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것이며,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5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고구마·배추' 장기 식품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해남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해남 고구마와 해남배추를 장기 식품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해남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부처 예산안 수립시기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해남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장기 성장동력이 될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고구마 및 해남배추에 대한 식품 산업화는 지난해 말 명현관 군수가 전국 최대 생산지인 해남 농산물에 대한 전략사업 육성을 지시하면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고구마 연구소 설립 및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 대표 특산물 해남 고구마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남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97억여 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는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김치전문생산단지는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 배추 주산지로서 김치 중추국의 위상 회복과 김치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나라 김치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어선 인양 위한 운송기 사업 '호응'

총 8대 이상 제작·배부

강진군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어선 인양을 위한 운송기 지원을 통해 관내 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선인양 운송기 지원사업은 매년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물양장 선착장에서 어선 크레인으로 인양된 어선을 운송기를 통해 인양하고, 어선 하체부 보수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지금까지 총 8대 이상을 제작해 어촌계에 배부한 결과 최근 3년간 군 내에서 단 한건의 선박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군은 올해 속마, 사초, 하저항 등 3개소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톤급 인양기를 설치하고, 소형 어선 인양을 위한 카고 크레인 임차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진=김영일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